

사용자가 참여하는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방재디자인 연구

A Study on the Disaster Prevention Design by Applying Infographics under Participation of Users

노 황 우

한밭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Hwangwoo Noh

Dept.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Hanbat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방재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경감, 예방디자인 분야에서 재난을 예방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사용자가 참여하는 인포그래픽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더욱 인터랙티브해지고 파워풀한 인포그래픽이 제작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요구 또한 다양화, 개성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을 통한 과거의 설계방법만으로는 최선을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 참여의 디자인 방법론이 요구된다. 참여디자인은 모든 구성원이 자기가 알고 있는 환경 부분을 만들어 가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참여를 통한 인포그래픽은 디자이너들은 과거의 획일화된 해결책을 개혁할 수 있으며 참여문화를 번창시키고 우리를 둘러싼 인적재난을 막기 위한 창조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I. 서론

인포그래픽(Infographics)은 인포메이션 그래픽스(Information graphics)의 줄임말로, 복잡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시각화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는 실생활에서의 정보중 상당량을 인포그래픽을 통해 전달받고 있으며 제공된 정보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더욱 인터랙티브해지고 파워풀한 인포그래픽이 제작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요구 또한 다양화, 개성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을 통한 과거의 설계방법만으로는 최선을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 참여의 디자인 방법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방재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경감, 예방디자인 분야에서 인적재난을 예방하고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사용자가 참여하는 인포그래픽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 범위는 인포그래픽과 참여디자인의 대표적인 사례조사를 통하여 방재디자인에서 중요한 경감, 예방디

인 분야에 참여형 인포그래픽의 활용가능성을 알아보는 데 있다.

II. 본론

자연재난은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대응, 방안 등은 상당히 알려져 있으나 인적(사회적)재난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과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 방재디자인의 개념

방재를 위한 디자인은 “방재디자인(Disaster prevention design)”이란 용어로 정리할 수 있으며, “방재디자인은 재난(재해)에 의한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여러 형태의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디자인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난복구를 신속 원활하게 하는 디자인”이라 정의할 수 있다.

방재디자인(Disaster prevention design)에는 재난의 대응에 따라 ①경감, 예방디자인(Mitigation, Prevention design) ②대비디자인(Preparedness design) ③대응디자인(Response design) ④ 복구디자인(Recovery design)으로 나눌 수 있다.

2. 인포그래픽이란?

인포그래픽(Infographics)은 인포메이션 그래픽스(Information graphics)의 줄임말로, 복잡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시각화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보의 시각화란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단순 명료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해당정보보다 의미 있는 정보로 생성될 수 있도록 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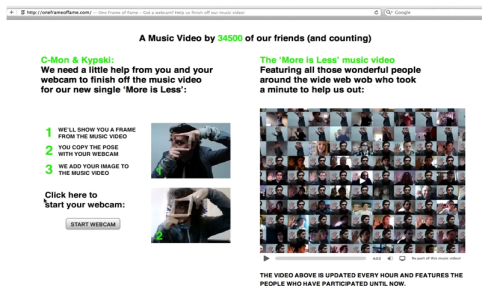


▶▶ 그림 1. 1933년 영국 해리백(Harry beck) 지하철 노선도

1933년 영국의 해리백(Harry beck)의 영국지하철 노선도를 예로 들 수 있다. 그이 노선도를 보면 간결한 선을 사용하여 비슷한 간격으로 역을 배치하였고, 색상으로 노선에 대한 정보를 구분하였다. 이것은 20세기 위대한 영국디자인으로 선정되었고, 오늘날 교통 정보를 시각화하는 인포그래픽의 선구자적인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기억 속에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3. 참여디자인의 필요성

그래픽 디자인은 사람들이 보는 것을 조정하고, 활자 배열을 조정하며, 그것이 지닌 개념을 조정한다.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이런 해석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었고, 폐쇄적이고 완벽하게 마무리된 작품을 통해 보는 이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지만 참여 디자인(Participatory Design)은 이런 사고방식을 뒤집는다. 참여디자인은 완성된 작품을 수동적인 관객에게 전달하기보다 열린 생산 시스템을 만든다.



▶▶ 그림 2. 조나단 파커의 C-Mon & Kypski 뮤직비디오

조나단 파커는 로엘 바우터스(Roel Wouters)와 함께 네덜란드 밴드인 C-Mon & Kypski를 위해 클라우드소싱 형태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 비디오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사용자들은 조나단 파커의 지시를 따라 한다. 사용자들이 흉내 낸 동작들로 비디오는 매시간 갱신된다.

III. 결론

사용자가 참여하는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방재디자인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가 잘 알고 있는 환경부분의 인포그래픽을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만들므로 복잡한 정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 만에 의존하는 실수를 줄여주고 사용자 참여로 정보관리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3.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새로운 플랫폼의 활용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더욱 인터랙티브한 인포그래픽을 통해 다양화, 개성화되는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4. 참여디자인은 획일화된 문제해결 방식에서 벗어난 창조적인 방재디자인을 가능하게 한다.

■ 참고 문헌 ■

- [1] 헬렌 암스트롱외1, 참여디자인, 비즈앤비즈, 2012
- [2] 이현주외2, Information design, (주)교문사, 2011
- [3] Hwangwoo Noh, Concepts of Disaster Prevention Design for Safety in the Future Society, IJOC Vol.9, 2014.03